

제429회 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0월23일(목)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
- 증인 고발의 건(추가)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추가)

## 상정된 안건

- |  |    |
|--|----|
|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 1  |
| 2.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 .....        | 5  |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8인 서면동의) ..... | 11 |
| 3. 증인 고발의 건 .....                      | 12 |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 | 15 |
|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 16 |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추미애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성근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시간은.....

○위원장 추미애 2분 하시지요.

○송석준 위원 2분이오?

○위원장 추미애 예.

○송석준 위원 3분은 안 되나요?

○위원장 추미애 2분 하십시오. 갈 길이 멍니다.

○송석준 위원 그러면 다른 분도 좀 주세요.

○위원장 추미애 일단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2분 시간 넣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이 위증 혐의로 고발이 돼서 오늘 이런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 군사법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채 해병 사건의 본질은 우리 병사가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온 국민이 걱정하고 부모님들이 슬퍼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달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채 해병 사건의 수사 관계가 너무나…… 해병대 지휘관들 7명, 8명을 같이 묶어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일단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그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심지어 격노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관련이 됐고 또 당시에 사단장에 대해서 구명 로비가 있었다 또 영부인이 관련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게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채 해병 소속 부대가 해병 1사단 소속이지만 육군 부대로 파견을 나간 겁니다. 파견 나가서 대민지원을 하다가 당한 사고예요. 임성근 사단장은 당시에 명백하게 원 소속 부대 지휘관이지 그 현지 작전 당시에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다만 응원을 하러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엮인 거예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 계속 말을 하는데 분명히 해병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건 수사였고 거기에 대해서 화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지금 심지어 ‘이분이 위증을 하는데 누구하고 아느냐, 모르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장경태 위원 그게 위증이지요.

○김용민 위원 왜 나와서 위증을 해요?

○장경태 위원 위증을 안 해야지. 위증을 엄호하시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위증도…… 지금도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검증을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김용민 위원 떳떳하면 위증을 안 해야지.

○장경태 위원 검증을 했잖아요. 저는 수사 다 받았어요.

○신동욱 위원 발언 중에……

○위원장 추미애 발언시간이 끝났습니다.

○송석준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거예요.

○서영교 위원 임성근 때문에 윤석열 무너졌지.

○장경태 위원 임성근 때문에, 이종호 때문에 저는 수사도 받았다고요.

○김용민 위원 이거는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회만. 국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장경태 위원 그러면 수사받고 오세요!

○송석준 위원 정말 어쩌면 직접 지휘관도 아닌 분을 가지고 이렇게 특검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정말 국가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또 법사위의 귀한 시간을……

○장경태 위원 저는 중앙지검 가서 조사도 받았어요. 한번 다 가서 조사받으셔야지. 서울경찰청 다 갔구먼.

○송석준 위원 곁다리를 가지고 또 위증 고발을 하겠다고, 이게 저는 너무나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 우리 사회의 암적인 그런 사건들과 당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본업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진행을 들어 주세요.

○나경원 위원 이쪽을 봐 주십시오. 의견 있습니다. 토론권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비교섭단체는 누구 안 계십니까?

두 교섭단체끼리 번갈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분 넣어 주세요. 2분입니다.

○장경태 위원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저희 법사위의 노력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졌습니다. 2024년 7월 19일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청문회 또 그 전에 채 해병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임성근 증인에게 ‘쌍룡훈련, 송호종과 이종호 어떻게 오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은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라고 했고 해병대 사령부에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인 명의의 초청장까지 제가 공개한 바가 있고요.

10월 17일 저희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이종호 씨를 모르느냐?’라고 재차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국회 차원에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호를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날 저녁에 어땠습니까? 이종호 씨를 만났던 사진까지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배우 박성웅 씨가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다’. 아니, 박성웅 배우가 정말 공인으로서, 연예인으로서 위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성근 씨가 증인으로 나와서 ‘이종호를 모른다’, 재차 2년에 걸쳐서 위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고요.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못 한다는 답변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은정 위원님의

질의에도. 그런데 그날 저녁 어땠습니까? ‘비밀번호가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증인에 대해서……

저는 임성근 증인과 이 멋진해병 5명 덕분에 이미 여러 경찰 조사도 받았고 출석조사 까지 다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확보돼서 다 무혐의됐는데요. 이렇게 위증한 사람들 엄중하게 처벌하고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임성근 사단장은 지난 10월 17일 법사위 국감에서 위증을 명백히 했습니다. 박성웅 배우가 명백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가 4명이나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이 국정감사장에서 임성근 증인이 나와서 뻔뻔하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종호를 모른다’ ‘박성웅도 모른다’ 그런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위증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날만 위증한 것이 아니에요. 국회에 몇 차례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 입법청문회 등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위증을 했습니다. 그런 전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이 두고 봐야 합니까?

임성근 사단장에게 법이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 줘야 합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찰과 수사기관이 어떻게 누구를 위증으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대표 앞에서 뻔뻔하게 위증을 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오늘 구속영장 심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국민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무고하게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임성근 전 사단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이 임성근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져야 하거든요. 임성근에 대한 구속수사만이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고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 저한테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둘씩 주시지요, 둘씩.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 나경원 간사 드리기로 했잖아요.

○나경원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신상발언 안 주셨는데 발언권을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 두 명씩 줘요, 두 명씩.

○위원장 추미애 사실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 함으로써 이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 국회는 고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곽규택 위원 아니, 위원장님 토론 기회를 주세요.

○ 김용민 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 나경원 위원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토론 종결을 아무 때나 하실 게 아니라……

○ 장경태 위원 대표로 한마디씩 했으니까 국정감사 합시다.

○ 곽규택 위원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토론해야 됩니다, 이것.

○ 나경원 위원 토론 기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추미애 그래서 김기표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는데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

(10시19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27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오세원 참고인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이분의 얼굴과 모습 등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동욱 위원 누구냐고요, 이게?

○위원장 추미애 오세원 참고인이십니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있다니까요.

○나경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손 안 들었어요. 나경원 위원님 시키세요.

○위원장 추미애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 안건뿐만 아니라 전의 안건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깔리지도 않고 지금 저희 보고 찬반을 논의하라니까 저희가 어찌 찬반을 논의하겠습니까?

아까 임성근 사단장 위증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어쨌든 헌법상의 원리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12조 2항에 보면 자기부죄금지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 국회법상,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술거부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오늘 발언권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요 발언권 안 주시는 추미애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상발언 계속 안 주실 거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위원께서 지난번 회의 말미에 제가 헌법소원을 19대 때 주장하고 같이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19대 때 말씀한 것은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을 두는 것이고 상고법원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 법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기타는 상고법원에서 하자는 것이고 헌법소원과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상고법원과 헌법소원이 같은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고법원은 4심제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또 헌법소원하고 명백히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박지원 위원님 그 발언 사과해 주시고.

추미애 위원께서는 계속 제가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안 주시는 것은 허위 사실이 그대로 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신상발언 겸 답변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사과하십시오, 사과.

○**나경원 위원** 사과해 주십시오.

○**위원장 추미애** 아니요,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토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들께 다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세원 참고인에 대해서 얼굴과 모습을 공개하지 않기 위한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송석준 위원** 그런데 오세원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판단을 못 하겠어요.

○**위원장 추미애** 대검찰청 국정감사 시에, ‘증인의 보호’ 조항 제9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 지금 나경원 위원이 우려하시는 것대로 자기부죄금지의 원칙 또는 증인 보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증감법 제9조(증인의 보호)에 ‘국회에서의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중계방송 또는 녹음·녹화·사진보도를 금지시키는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따른 위원장의 의사진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취지의 증인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누가 어떤 사유로 증인 채택했는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추미애** 김용민 위원님.

○**신동욱 위원** 왜 자꾸 딴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나온 증인인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지 토론을 할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오세원 참고인은 이미 우리가 의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미 의결한 명단에 다 있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일 대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오시는 분이고 과거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조폭 연루설, 허위문서 만들었던 것과 관련된 허위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술을 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익신고자로 돼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를 위해서 본인의 요청도 있었고 해서 우리 국회증감법 9조에 따라 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가 이미 다 나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셨으면 위원님들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자료에.

○김용민 위원 아니, 우리가 증인·참고인 신청할 때 이미 다 들어가 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성근에 대해서는 자기부죄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렸습니다. 국회증감법 3조에 보면 증언 거부가 있어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임성근 증인은 과거 청문회 때 처음에는 증인 선서도 거부했어요. 그래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서 자기가 증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선서하고 증언을 시작했지요.

증인 선서를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부죄가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굳이 진술을 했고 그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발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위원 토론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국정감사를 성실히 임했거나 퇴장하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왜 필요한가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께서 저에게 4심제에 대해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나경원 위원과 저는 대법원에서 요구했던 상고부 신설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한 바가 있다. 이때……

○나경원 위원 아니, 상고부하고 헌법소원이 어떻게 같습니까? 상고부하고 헌법소원은 다르잖아요.

○박지원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저러니까 저분이 없을 때는 법사위가 조용했는데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송석준 위원 아는 게 많으니까.

○곽규택 위원 원래 시끄러웠어요, 법사위는.

○박지원 위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송석준 위원 틀린 말을 고쳐 주는 거예요.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박지원 위원 들어 보세요.

나경원 위원이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나간 것은 좋았어요. 그날은 조용했잖아요. 나경원 위원이 들어오면,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시끄러워요.

○곽규택 위원 추미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위원 이게 우리 법사위의 악입니다, 악. 누가 소란 피우는지는 국민들이 보면 돼요.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악입니까?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박지원 위원 나경원 위원이 악이라는 게 아니라 소란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다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상고부 신설에 대해서 저랑 함께 공동발의를 했는데 이때도 ‘하급심이 부실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도 각 지방법원에는, 전주지방법원 등 상고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심 판사들이 거기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 그때도 4심제냐 하는 시비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게 회기를 넘겨 가지고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현재도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실시가 되고 있고 서영교 위원이 주장한 대로 1살 때 버린 아들을 54년 후에 아들이 죽으니까 엄마가 찾아와서 재산·집 다 가져갔습니다. 사망보험금까지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엄마 편을 손들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들 편을 손들었는데 무효가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재판소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자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판결에 관여한 게 아닙니다. 재판소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추미애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성윤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 동의에 대해서 손을 들어 주시고요.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비공개의 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석준 위원** 있대요, 이의가 있대요.

○**위원장 추미애** 안 들렸어요.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조배숙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님은 얼굴을 공개하자는 의견이시군요.

○**나경원 위원**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추미애**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조배숙 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니까……

○**위원장 추미애** 조배숙 위원님, 손을 드신 겁니까?

○**신동욱 위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얼굴을 공개하자는 얘기로 그렇게 왜곡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영교 위원** 아니, 얼굴 공개하자는 거지. 그러면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조배숙 위원님이 무슨 얼굴을 공개하자 그래요?

○**주진우 위원** 제대로 내용을 알고 하자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우리 위원회는 해당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얼굴 모습 등을 비공개할 뿐만 아니라 필요 시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추가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구나 안심하시고 국회에 나오셔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진술하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참고인의 출석과 질의응답 시 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의사일정을 추가해 달라는 2건의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위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서면동의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동의도 이렇게 내놓으시고, 진행을 빨리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이 머네요.

○**신동욱 위원** 교섭단체 간사도 선임 안 해 주면서 뭘 도와 달라고 그럽니까? 간사가 있어야지 협조를 하지요.

- 장경태 위원** 이해충돌 해결하고 오세요. 이해충돌 해결하고 오십시오.
- 신동욱 위원** 무슨 이해충돌을 해결해요? 민주당에 이해충돌 있는 분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법사위에?
- 김용민 위원** 부결됐잖아요, 부결. 다른 간사를 추천하세요, 그러면.
- 신동욱 위원** 무슨 부결을 해요?
- 나경원 위원** 일사부재의에도 해당이 안 돼요.
- 곽규택 위원** 법에도 없는 표결을 하고 무슨 부결이에요?
- 나경원 위원** 표결입니까, 그게?
- 위원장 추미애** 스스로 회피서까지 내셨잖아요.
- 나경원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장경태 위원** 사실 법조인도 그러면 이해충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다.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 장경태 위원** 기소당한 것 가지고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법조인들 다 나가셔야지요, 특히 거기 검사들.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나가세요, 그쪽도.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말싸움하지 말고 간사 선임하라고요. 그게 말의 앞뒤가 맞습니까?
- 장경태 위원** 하여간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앞뒤가.
- 송석준 위원** 간사 선임을 안 하니까 자꾸 시끄럽잖아요. 법사위가 자꾸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간사 간 합의하면 깨끗하게 정리될 게 계속 떠들어 대니까.
-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이 조용히 해 주시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송석준 위원** 위원장님을 위해서 뽑는 거예요, 간사는.
- 위원장 추미애** 제발 저를 위해 주신다면 소리를 낮추시고 타 위원님 질의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추미애 위원 외 8인 서면동의)

(10시34분)

- 위원장 추미애** 먼저 추미애 위원, 위원장인 제가 2024년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중인의 위증과 2024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중인 선서한 송창진 중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중인 고발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추미애 위원 외 여덟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중인의 위증과 2024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중인 선서한 송창진 중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의 중인 고발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경원 위원 등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 증인 고발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추미애** 의사일정 제3항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에 따라 2024년 1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증인의 위증과 2024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한 송창진 증인의 위증에 대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 고발하시는 것 좋습니다. 위증하면 고발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법사위의 진행 양태가 매우 이상하게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저는 국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출한 서면동의서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찬성자 서명부' 보면 다 필적이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무소속 위원님의 필적까지도, 아마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쓰신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 분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장은 물론 맡겨 놓고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서면동의서가 위조된 서면동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김용민 위원** 위조가 아니라…… 우리가 다 동의하면 위조가 아니에요.

○**신동욱 위원** 아니아니요, 이름을 한 분이 써요. 한 분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표 위원** 법조인들이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용민 위원** 아니, 법률가가……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들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서면동의서라는 것을 써서 계속 올리고 민주당이 원하는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보세요. 지금 왜 최혁진 위원님 이름하고 장경태 위원님 이름 쓰신 분이 같습니까?

○**전현희 위원** 타이핑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혀위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신동욱 위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런 것조차,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의 잘못된 관행을 이런 부분조차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중인 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인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한 사람을 고발하는 문제는…… 지금 이분들이 다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발을 서두르는 이유는, 다른 상임위도 보면 국감 끝나고 나면 여야가 마주 앉아서 어떤어떤 사람의 위증을 고발해야 될 것인지 상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 부른 중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국감 중에 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발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나쁜 겁니다. 또는 이게 영장 청구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위증으로 고발했으니까 구속영장 처리해라 이런 압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시더라도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고발 대상자다 모아서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협의해서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 국회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적 보복의 장으로 고발을 합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조금 전에 장경태 위원님 이것 때문에……

○**위원장 추미애**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신동욱 위원** 임성근 때문에 조사받은 것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발하라고 하는 것은……

○**장경태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신동욱 위원** 국회를 사적 보복의 장으로 자꾸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발자를 끝나고 나서 협의해 주세요.

.....

○**장경태 위원** 아니, 위증을 해서 고발하는 거지 제가 기분 나빠서 고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 2분입니다.

○**이성윤 위원** ‘국감장을 사적 보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힘 위원들, 야당 위원들 하시는 것 보면 정말로 자기들이 국감을 방해하는 정도가 넘어서 깽판 국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한 지

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모습은 작년에도 못 봤고 올해 들어서 더욱더 심해진 것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 보면 정말 특검에서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깽판식 깽판 치기는 그만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모 언론에서 국감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거시하면서 개인 분풀이, 국감 아닌 사감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아마 그 기사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뻔뻔스럽게 위증하는 것 보셨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법무참모가 바로 법무부장관입니다. 12·3 불법계엄 내란이 선포됐을 때 국민들은 딱 보고 ‘전쟁도 아닌데 왜 계엄이야?’라고 하면서 여의도로 몰려와서 국회의원들을 담을 넘겨서 계엄 해제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법을 전공하지 않은 시민도 딱 10초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수십 년간 법을 공부한 대통령의 법무참모가 이것을 모른다고요?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 나와서 얼마나 거짓말했습니까? 더군다나 신용해 교정본부장한테 지시한 것, 자기는 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위증행위는 정말 우리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행위에 대해서 고발로 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곽규택 위원** 의견 있습니다.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인 고발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곽규택 위원님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중인 이완규에 대한 위증 고발 취지 좀 보세요. ‘법적 성격과 내용을 다르게 진술했다’ 이게 고발 취지가 말이 됩니까, 사실관계에 관한 증언이어야지?

○**나경원 위원** 진짜 무식한 얘기다, 무식한 얘기.

○**위원장 추미애**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경원 위원** 이거 창피한 거예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면. 법적 성격을 어떻게……

○**김용민 위원** 연말 모임과 대책 모임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경원 위원** ‘법적 성격’이라는 걸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신동욱 위원** 정치 보복으로 무차별적으로 고발을 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위원** ‘법적 성격을 다르게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고발 취지가 됩니까?

○**위원장 추미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는 내란 청산 방해 세력으로 오해 하실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장 등의 작성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

###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나경원 위원 외 6인 서면동의)

(10시45분)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기밀을 빼낸 것과 관련해 이상호·김현지·설주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나경원 위원님 외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호·김현지·설주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주 신사적이십니다, 민주당 교섭단체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0시46분)

○위원장 추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도 국정감사에 이 상호·김현지·설주완을 증인으로 추가하여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균택 위원님.

2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국회의원 보좌관이 수사 상황을 파악했느냐 여부 이 부분은 검찰 본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영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범죄가 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더구나 이 보도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따라서 기본적인 소명조차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주완 변호사가 피의자의 불신을 받은 것 이게 저는 사태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왜 피의자의 변호사가 검사와 유착을 했느냐, 그 검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검사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이 점에 대한 의혹이 사건의 본질인 것 같고 그것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것은 해당 검사를 추궁함으로써 충분히 문제점을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당연히 부결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진우 위원님.

○주진우 위원 지금 설주완 변호사 관련해서 검사와 유착돼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켰다라고 하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지금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화영과의 어떤 통화 녹취까지도, 대화 녹취까지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김현지 보좌관이 먼저 연락이 와서 관련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고 또 이화영이 이재명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사임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설주완 변호사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왜 증인으로 못 부르지요?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주완 변호사 진술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호 변호사,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역시 쳤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리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들은 고발을 못 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고 또 수사 대상인데 왜 이 부분도 불러서 확인조차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상호 변호사는 심지어 김용 재판과 관련해서 혀위 알리바이를 댔던 사람들의 위증, 재판에도 나와 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증언도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증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증인들 대비로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유독 김현지 보좌관과 또 그 관련된 변호사만 못 부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의혹이, 민주당이 할 말이 있으면 같이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꼭 부르십시오.

○**이성윤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추미애** 토론을 안 하신 위원님.....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이 토론.....

○**위원장 추미애** 이성윤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토론 종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토론 종결 동의에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찬성 9인, 반대 7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곽규택 위원** 토론 종결이 부결됐어요?

○**나경원 위원** 저쪽이 과반수가 안 됐으니까 우리 토론 계속하면 돼요.

○**위원장 추미애** 토론해 주세요.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회의에 집중 좀 하십시오, 회의에 집중 좀 하셔.

○**위원장 추미애** 잘됐지 않습니까?

○**김기표 위원** 갑자기 당황하시는 것 같네.

○**곽규택 위원** 당황스럽지.

○**김용민 위원** 저희가 배려한 거예요, 배려.

○곽규택 위원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것을 부결을 해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아니, 박군택 위원님께서 국정감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국정감사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중인 중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은 국정감사 안건하고 딱 맞는 중인들을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설주완 변호사에 대해서는 뭐 검사하고 유착관계가 있다 이런 의심이 드니까 불러 볼 필요성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불러 가지고 중인으로 확인을 해 보고 과연 국감과 관련된 내용인지 그리고 과거에 했던 것이지만 지금의 국감과 상관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지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중인으로 불러도 된다. 불러 보자. 그런데 김현지가 ‘국회에서 나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요 하루 지나 가지고 갑자기 다른 방송에 나오셔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또 이러셨어요. 이게 국감에 나오는 중인에 대해 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어떤 개별적인, 누군가 제삼자의 컨트롤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드는 겁니다.

지금 김현지·이상호·설주완, 이게 재판 진행 중이고 공범 관계를 의심받는 사람들 사이에 변호인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당연히 그것은 사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고, 민주당 위원님도 궁금하시다면서요, 설주완 변호사가 검사하고 유착을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 보면,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중인으로 부릅니다.

○위원장 추미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일 좀 합시다. 일 좀 하고 제대로 좀 합시다. 윤석열·김건희, 그 나쁜 짓 할 때 한마디도 못 하더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일 좀 하는데 여기에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발목을 잡아서 되겠습니까?

주가지수가 3800을 넘었어요. 아주 올라가니까 그쪽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중국인 돈이 들어온 것 같다고. 정신 나갔어요. 외국인 투자 양 중에 중국인 투자는 2.2% 정도밖에 안 돼요, 2%.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관계있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이 나쁜 작태는 끝내 여러분 부메랑이 될 겁니다.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의원의 변호사, 박상용 검사하고 주진우 위원이 티키타카를 하더만요. 티키타카를 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아니, 이화영 의원의 변호인이 왜 박상용 검사한테 가서 줄줄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 뭐니까?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의원 변호사를 협박한 겁니까? 이화영 의원 변호사를 협박해서 압수수색 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다 이야기할게요. 녹취록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태가 ‘페트병에다가 소주 넣어 가지고 와, 오늘 내가 이화영 의원하고 작정을 할 테니까’. 이것 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박상용 검사, 박상용 검사만 했겠습니까? 그때 법률비서관 누구예요? 주진우 위원 등.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것은 모두 기각시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그래요.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 봐요. 토론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해 주세요.

- 박지원 위원 토론 신청합니다.
- 나경원 위원 토론권 주십시오. 발언권 주십시오.
- 신동욱 위원 불러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주진우 위원 관련 있는지. 물어봅시다, 좀. 우리도 궁금해 죽겠네.
- 박은정 위원 특검이 소환을 해야 돼요, 주진우 위원.
- 나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고요.
- 김기표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 김용민 위원 토론 종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조배숙 위원 또 토론 종결해? 아까 끝났잖아요.
- 곽규택 위원 더더욱 증인으로 불러 봐야겠네.
- 나경원 위원 더더욱 설주완 변호사를 불러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 위원장 추미애 곽규택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조배숙 위원 또 해요? 아까 끝나지 않았어요?
- 김용민 위원 김기표 위원입니다.
- 박은정 위원 수사기관에 가서 받으세요, 수사를.
- 전현희 위원 수사받으세요, 수사.
- 나경원 위원 아니, 누가 토론 종결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토론 종결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김기표 위원이랍니다, 김기표 위원.
- 나경원 위원 지금 이것 절차가 위반이 되고 있어요.
- 김기표 위원 김기표가 했습니다.
- 박은정 위원 수사받으세요, 수사.
- 서영교 위원 오늘은 검사들을 압박한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 낱낱이 폭로됩니다.
- 나경원 위원 한 번 토론 종결 부결됐기 때문에 토론권 더 주셔요.
- 박은정 위원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소환됐던데 같이 수사받으세요.
- 나경원 위원 한 번 토론 종결 부결됐기 때문에 토론 종결할 수 없어요. 한 번 더 토론권 주십시오.
- 김용민 위원 저희도 협조할 테니까 그래도 한 번씩 말하게 해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그러면 1명씩 더 하는 걸로 합시다.
- 나경원 위원 아니, 다 줄줄이 한 번씩, 우리 위원님들 몇 명 안 돼.
- 곽규택 위원 한 번씩 다 해. 이렇게 기념비적인 날 한 번씩 다 해야지, 토론 종결이 부결됐는데.
- 김용민 위원 국정감사 안 해?
- 나경원 위원 토론 종결 일사부재의입니다.
- 장경태 위원 어떻게 해서든 국감 진짜 하기 싫어 가지고 하여간 정말……
- 곽규택 위원 얼마나 기념비적인 날입니까. 한 번씩 다 합시다.
- 김기표 위원 국정감사 좀 합시다.
- 장경태 위원 1시간 내내 이것만 하고 있네. 시간 아까워 죽겠네.

- 나경원 위원 우리 야당 입틀막이 드디어 해제되는 날입니다.
- 곽규택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 김용민 위원 배려, 배려.
- 곽규택 위원 부주의로 인해서 모두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는데 다 토론해야지.
- 김용민 위원 배려.
- 주진우 위원 최초예요, 최초.
- 최혁진 위원 세상에 국감 과행된다고 이렇게까지 좋아하실 줄은 제가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 나경원 위원 우리가 협조를 해 드리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계속……
- 곽규택 위원 아니, 김현지 부르자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감에서.
- 나경원 위원 우리 김현지 불러야지.
- 최혁진 위원 너무 신나셨어, 오전에 국감 안 하게 됐다고.
- 송석준 위원 토론 종결 부결됐으니까 토론 기회 좀 주세요.
- 주진우 위원 토론 기회 주세요.
- 조배숙 위원 토론 기회 주세요. 토론 기회 주십시오.
- 나경원 위원 토론 종결 부결됐으니까 저희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설주완 왜 불러야 되는지, 김현지 왜 불러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위원 저희는 윤석열 불러 보고 싶어요, 김건희랑.
- 주진우 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고요.
- 장경태 위원 김건희·윤석열 다 부를까요, 그러면?
- 신동욱 위원 불러요.
- 주진우 위원 토론해요.
- 곽규택 위원 중인 신청하셔.
- 나경원 위원 설주완·김현지 다 불러야 되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 주진우 위원 무슨 작전회의가 그렇게 겁니까? 빨리 토론합시다.
- 나경원 위원 표결했으니까 저희 토론권 주십시오.
- 곽규택 위원 표결을 했으니까 이건 일사부재의지.
- 나경원 위원 일사부재의지니까.
- 위원장 추미애 송석준 위원님 하세요. 2분입니다.
- 송석준 위원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김현지 부속실장은 국회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재판 사건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아마 본인을 위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도 계속 일파만파 증폭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떳떳하게 국회로 나오셔서 본인의 입장과 이런 세간에 떠도는 의혹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밝혀서 국민적 의혹을 좀 풀어 줄 의무가 있고 또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아주 중요한, 이번에 대통령 관련된 재판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의혹들이 또 많이, 우리 법사위 중간중간에 징후가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도, 이렇게 괜히 의혹을 증폭시켜서 오해받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본인이 명쾌하게 밝힘으로 해서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고 또 우리 법사위에서 우리가 밝혀야 될 진상 규명하는 데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증인 신청을 한 게 있었는데요. 10월 27일 대검 국감 때 토텍의 정지용 증인을 신청했는데 관계 상황이 이제 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취소를 신청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증인 철회 안건을 좀 올려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토론.

○위원장 추미애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박지원 위원 꽈규택 위원께서 제 방송을 그렇게 모니터링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합니다.

제가 분명히 김현지 총무비서관과 잘 아는 사이고 그의 출신을 의심해서 ‘전남 담양 출신이고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 졸업하고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지금 총무비서관이다’. 총무비서관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고 했지만 지금은 부속실장입니다. 그래도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되면 운영위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현지, 여성입니다. 그분한테 ‘이재명 대통령과의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러한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곽규택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박준태 위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조배숙 위원 우리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지원 위원 당신들의……

○박준태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지원 위원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지원 위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민주당 같이할 때……

○곽규택 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박준태 위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최혁진 위원 발언 방해하지 마세요!

○박지원 위원 조배숙 위원……

○조배숙 위원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박지원 위원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조배숙 위원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박준태 위원 아니, 박지원 위원님,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조배숙 위원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세요.

○김용민 위원 들어 보세요.

○**박지원 위원** 김대중 대통령과 여성 총무비서관이 내연 관계다, 박지원이 무슨 텔런트와 어쩐다, 재산이 어쩐다……

○**조배숙 위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박준태 위원** 누가 내연관계라는 얘기를 합니까?

○**조배숙 위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박지원 위원** 그랬을 때 제가 박관용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형님,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여당에서 하니까 의장님이 좀 중재해 주십시오’. 박관용 의장님이 ‘야, 임기 끝나면 다 없어진다. 귀당의 선배는 이희호 여사님이 하루에 신한은행에서 1조·3조씩 3일, 이를 간격으로 인출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입니까?’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운영위원회 나가서 난장판 만드는 테 그 여성의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마라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원 위원** 저희 토론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비교섭 차례입니다.

○**위원장 추미애**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나경원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현지 실장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왜냐, 저희가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 이화영의 변호사를 사임시킨 것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공동체 아닌가.

여러분, 영화 ‘아수라’ 기억날 겁니다. 안남시장 박성배의 뒤처리, 험한 일,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입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김현지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화영 지사 사건의 변호사를 사임시키고요. 또 보니까 성남시의회 폭동 동영상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뒷일은 다 김현지 실장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남시의회 고문서, 허위사실 담긴 문자 3만 2071건까지 발송했던 것 잘 아실 겁니다, 성남시의원들 비난하면서. 조금 전의 화면 보시면 얼마나 험하게 성남시의원들한테 저렇게 멱살 잡고…… 보면 저희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친형 강제 입원 개입 정황이 있습니다. 이 판결문 보십시오. 결국 친형 강제 입원은 직권남용 미수죄가 없어서, 왜냐하면 강제 입원을 시키라고 했는데

보건소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죄로 끝났는데요. 그때 김현지 실장이 이 판결문에 나옵니다. 김현지 실장이 정신과 의사한테 이재선을 만나라고 합니다. 결국 건건이 김현지 실장이 등장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리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이화영 부지사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관계에 있는 김현지 실장을 끝끝내 자리까지 옮겨 가면서 비호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 저희가 밝혀야 될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민주당 위원님들, 결백하다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추미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걸 아무리 들어 봐도 진짜 이재명 정부에 대해 흠품 내기,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진 그런 증인 신청이다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필요하면 운영위에서 하시라니까요. 운영위에서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위원 아니, 우리 사건과 관련되니까 하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들어 보십시오.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이 터진 지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 내란의 껌데기만 잠깐 구속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 껌데기의 우두머리인 윤석열만 잠깐 구속시켰지 껌데기 밑에 숨어 있는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권 초기부터 정권 혼들기만 하고 있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내란의 실체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밝혀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경원 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내란…… 아니,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세요.

○송석준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세요, 동료 위원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 하지 마시고.

○김용민 위원 보십시오. 윤석열 정권 내내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죽이기,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를 온 정권이 나서서 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되니까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법부는 대선에 개입해서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습니다. 군·경·검 곳곳에 여전히 내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극우세력과 손잡고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고 거리에서 이재명 정부 혼들기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의 실체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내란의 실체가 드러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식의 공격이 바로 내란을 이어 가겠다라는 것을 저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규정짓고 규탄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준 위원 김현지에 대해서 토론해야지요.

○곽규택 위원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나경원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세요.

○김용민 위원 이게 안건 토론이에요.

○곽규택 위원 이게 왜 안건 토론이에요, 이게?

○김용민 위원 이 자체가 내란을 이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송석준 위원 왜 김현지는 사라지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만 나와.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종결 안건에 대해서는 여덟 분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 소란)

따라서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권한이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오늘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는 피감기관들이 대기 중이시고 또 증인과 참고인들이 저렇게 미리 일찍 오셔서 대기 중입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님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8인 중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 ○출석 위원(18인)

곽규택 김기표 김용민 나경원 박군택 박은정 박준태 박지원 서영교 송석준  
신동욱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조배숙 주진우 최혁진 추미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박병섭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이은정